

2023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

2024. 4. 21

◀ 목 차 ▶

1. 주요 분석결과 / 1

가. 2023년 상용근로자 연임금총액 4,781만원,
전년 대비 2.8%, 최근 3년 간 13.2% 인상 / 1

나. 2023년 300인 미만 연임금총액 4,296만원(전년 대비 2.6%↑),
300인 이상 6,968만원(2.4%↑) / 3

다. 2023년 금융·보험업의 연임금총액 8,722만원,
숙박·음식점업(3,029만원)보다 약 5,700만원 높아 / 5

라. 2011년 이후 누적 시간당 임금 인상률 65.3%,
임금총액 인상률 50.1%보다 높고, 물가상승률(24.2%)의
2.7배에 달해 / 7

2. 시사점 / 9

1

주요 분석결과

가

**2023년 상용근로자 연임금총액 4,781만원,
전년 대비 2.8%, 최근 3년 간 13.2% 인상**

□ **(임금총액)** 2023년 상용근로자⁽¹⁾ 연임금총액⁽²⁾(정액급여⁽³⁾+특별급여⁽⁴⁾, 초과급여 제외)은 4,781만원으로 전년(4,650만원) 대비 131만원(2.8%), 2020년(4,222만원) 대비 559만원(13.2%) 인상

- (1) 상용근로자 :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. 이하 분석은 모두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음.
- (2) 연임금총액 :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. 이하 초과급여 포함으로 표기하지 않은 연임금총액은 모두 '정액급여+특별급여'를 의미
- (3) 정액급여 :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, 기타수당 등으로 지급한 총액
- (4) 특별급여 : 성과급, 상여금 등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하나, 주로 성과급의 크기에 따라 변동

○ 초과급여를 포함한 연임금총액은 2023년 5,053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천만원을 넘어섬.

○ **(2023년)** 2023년 연임금총액(정액급여+특별급여) 인상률(2.8%)은 2022년 5.2%에 비해 2.4%p 낮아졌는데, 이는 2022년 10.4% 증가했던 특별급여가 2023년에는 전년에 비해 2.9%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

- 임금 구성항목별로 살펴보면, 2023년 전년에 비해 3.8% 증가한 정액급여*와는 달리, 특별급여는 전년보다 2.9% 하락

⇒ 2023년 특별급여액(648만원)이 역대*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,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2022년(667만원)에 비해 하락하였음에 기인

*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1인 이상 전규모 사업체 임금과 근로시간을 최초로 공표한 2011년 이후

○ **(2021~2023년)** 최근 3년 간 상용근로자의 연임금총액은 4,222만원에서 4,781만원으로 13.2% 인상

- 임금구성항목별로 살펴보면, 정액급여는 2020년 이후 3~4%대의 안정적인 인상률을 보이며, 최근 3년간 11.9% 인상

- 기업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특별급여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14.3%, 10.4%씩 큰 폭으로 인상된 후 2023년에는 2.9% 감소
- 이에 따라 최근 3년(2021~2023년) 특별급여의 누적 인상률은 22.4%로 정액급여 11.9%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음.

< 표 1. 2020~2023년 상용근로자 연임금총액 및 인상률 >

(단위 : 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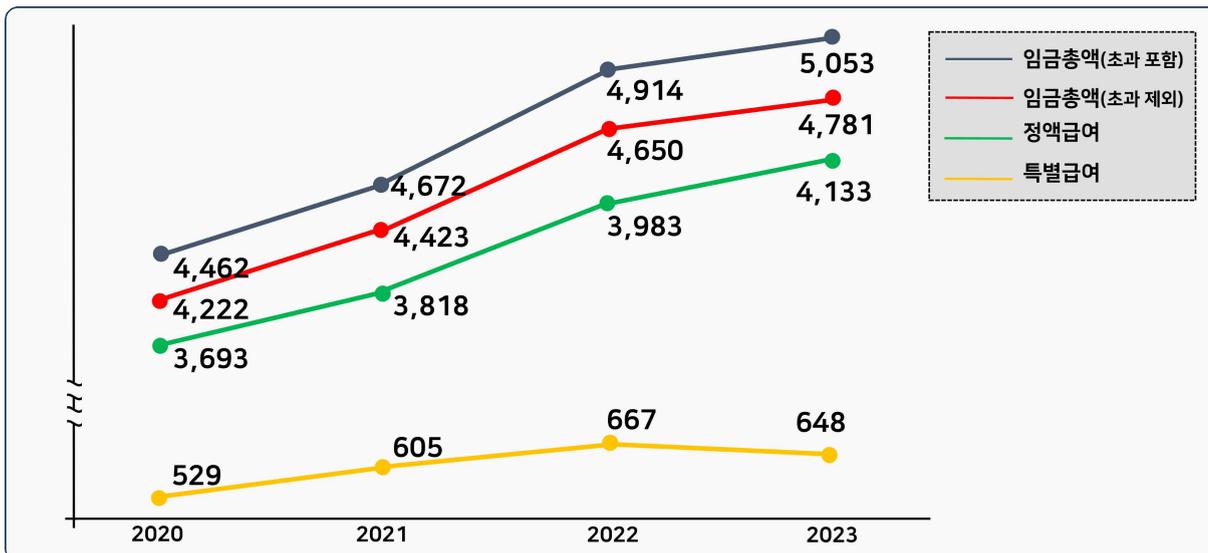
구 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0년 대비 '23년 인상률
연 임금총액	4,222	4,423	4,650	4,781	13.2%
	-	(4.8%)	(5.2%)	(2.8%)	
정액급여	3,693	3,818	3,983	4,133	11.9%
	-	(3.4%)	(4.3%)	(3.8%)	
특별급여	529	605	667	648	22.4%
	-	(14.3%)	(10.4%)	(-2.9%)	

주. 괄호 안은 각 연도별 전년 대비 인상률

자료 : 고용노동부 2020~2023년 누계 사업체노동력조사(근로실태부문), 이하 동일

< 그림 1. 2020~2023년 상용근로자 연임금총액 추이 >

(단위 : 만원)



4

2023년 300인 미만 연임금총액 4,296만원(전년 대비 2.6%↑), 300인 이상 6,968만원(2.4%↑)

- **(사업체 규모별)** 2023년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연임금총액은 4,296만원(전년 대비 2.6% ↑), 300인 이상은 6,968만원(전년대비 2.4% ↑)으로,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을 '100'으로 볼 때 300인 미만 사업체는 '61.7'로 나타남.
- **(임금격차 변화)** 3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수준은 2020년 64.2에서 2023년 61.7로 하락했으며, 2022년 61.5보다는 다소 높아진 것으로 분석
 - 300인 이상 사업체의 연임금총액은 2020년 5,995만원에서 2023년 6,968만원으로 13.2% 인상
 -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연임금총액은 2020년 3,847만원에서 2023년 4,296만원으로 11.7% 인상
 - 이에 따라, 3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수준은 2020년 64.2에서 2023년 61.7로 하락하며, 최근 3년 간 사업체 규모간 상대적 임금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.

< 표 2. 2020~2023년 상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연임금총액 및 인상률 >

(단위 : 만원)

구 분	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0년 대비 '23년 인상률
300인 이상	연임금총액 (A)	5,995	6,395 (6.7%)	6,806 (6.4%)	6,968 (2.4%)	16.2%
300인 미만	연임금총액 (B)	3,847	4,001 (4.0%)	4,187 (4.6%)	4,296 (2.6%)	11.7%
	상대적 수준 (B/A) ^{주2)}	64.2	62.6	61.5	61.7	-

주 1. 괄호 안은 각 연도별 전년 대비 인상률

주 2.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을 100으로 볼 때,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의 상대적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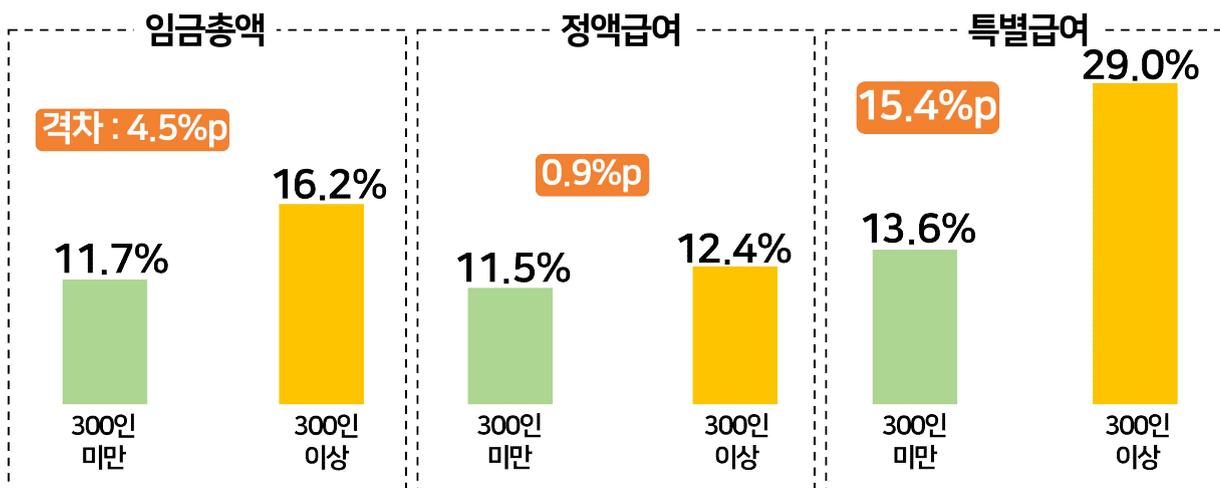
○ 이는 2021~2023년 300인 이상 사업체 특별급여 인상률(29.0%)이 300인 미만 (13.6%)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.

- 최근 3년간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연임금총액은 11.7%, 300인 이상은 16.2% 인상되어, 300인 전후 사업체의 임금 인상률 격차는 4.5%p로 나타남.

- 임금 구성항목별로 살펴보면, 최근 3년 정액급여는 300인 미만 사업체와 300인 이상 사업체가 각각 11.5%와 12.4% 인상되어 규모 간 격차는 0.9%p 수준이었음.

- 그에 반해, 동기간 특별급여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29.0% 인상되며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(13.6%)과의 격차는 15.4%p에 달함.

< 그림 2. 2020년 대비 2023년 사업체 규모별 연임금총액 및 정액·특별급여 누적 인상률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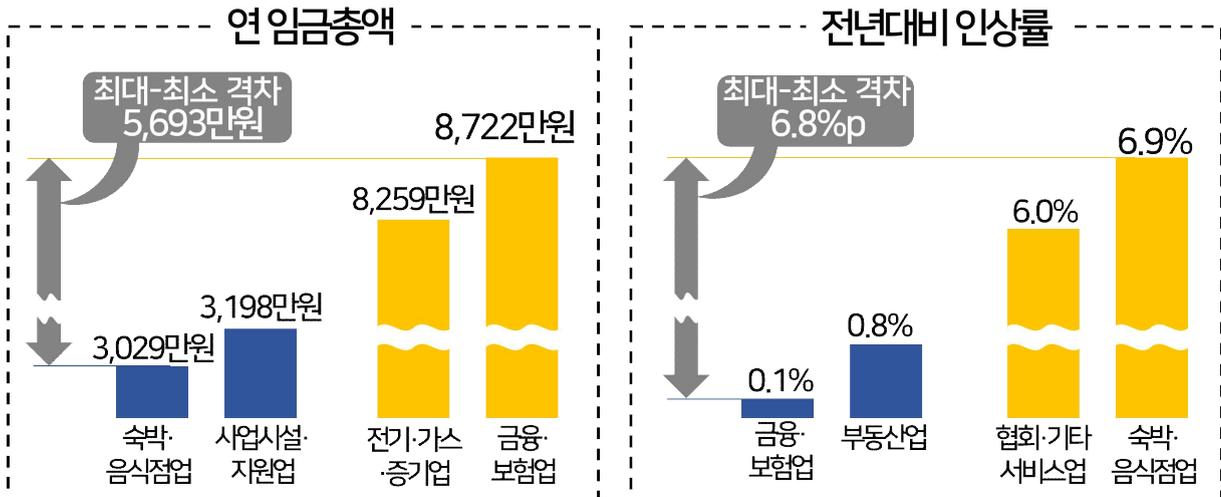
다

2023년 금융·보험업의 연임금총액 8,722만원, 숙박·음식점업(3,029만원)보다 약 5,700만원 높아

- **(업종별 임금 수준)** 2023년 업종별 연임금총액(정액+특별급여)은 금융·보험업이 8,72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, 숙박·음식점업은 3,029만원으로 가장 낮아, 두 업종 간 격차는 5,693만원에 달했음.
 - 2023년 연임금총액 상위 3개 업종은 금융·보험업(8,722만원), 전기·가스·증기업(8,259만원), 전문·과학·기술업(6,498만원) 순으로 나타남.
 - 2023년 연임금총액 하위 3개 업종은 숙박·음식점업(3,029만원), 사업시설·지원·임대업(3,198만원), 협회·기타서비스업(3,649만원) 순으로 나타남.
- **(업종별 인상률)** 반면, 연임금총액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숙박·음식점업이 6.9%로 가장 높았고, 금융·보험업은 0.1%로 가장 낮았음*.
 - 2023년 전년대비 임금 인상률은 숙박·음식점업(6.9%), 협회·기타서비스업(6.0%), 사업시설·지원·임대업(4.5%) 순으로 높게 나타나, 2023년 연임금총액 수준이 가장 낮은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게 나타남.
 - 반면, 2023년 연임금총액이 가장 높았던 금융·보험업은 전년대비 임금 인상률이 0.1%로 가장 낮았음.

* 2023년 금융·보험업의 정액급여는 전년 대비 3.0% 인상되었으나, 특별급여가 6.1% 하락하며 전체 연임금총액 인상률이 0.1%로 쏠 업종 중 가장 낮게 나타남.

< 그림 3. 2023년 업종별 상용근로자 연임금총액 및 인상률 상·하위 2개 업종 >



< 표 3. 2020~2023년 업종별 연임금총액 및 인상률 >

구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0년 대비 '23년 인상률
전 업종	4,222	4,423 (4.8%)	4,650 (5.2%)	4,781 (2.8%)	13.2%
금융·보험업	7,794	8,301 (6.5%)	8,713 (5.0%)	8,722 (0.1%)	11.9%
전기·가스·증기업	7,742	7,820 (1.0%)	8,009 (2.4%)	8,259 (3.1%)	6.7%
전문·과학·기술업	5,818	6,075 (4.4%)	6,397 (5.3%)	6,498 (1.6%)	11.7%
정보통신업	5,397	5,608 (3.9%)	5,850 (4.3%)	5,997 (2.5%)	11.1%
광업	4,771	4,905 (2.8%)	5,184 (5.7%)	5,368 (3.5%)	12.5%
제조업	4,411	4,696 (6.5%)	4,979 (6.0%)	5,131 (3.0%)	16.3%
건설업	4,392	4,573 (4.1%)	4,777 (4.5%)	4,934 (3.3%)	12.3%
수도·하수·폐기업	4,376	4,589 (4.9%)	4,666 (1.7%)	4,819 (3.3%)	10.1%
도·소매업	4,135	4,296 (3.9%)	4,563 (6.2%)	4,766 (4.4%)	15.3%
운수업	3,961	4,268 (7.8%)	4,538 (6.3%)	4,717 (3.9%)	19.1%
교육서비스업	4,166	4,162 (-0.1%)	4,272 (2.6%)	4,355 (2.0%)	4.5%
예술·스포츠·여가업	3,524	3,703 (5.1%)	3,804 (2.7%)	3,856 (1.4%)	9.4%
부동산업	3,427	3,551 (3.6%)	3,711 (4.5%)	3,742 (0.8%)	9.2%
보건·사회복지업	3,411	3,490 (2.3%)	3,613 (3.5%)	3,685 (2.0%)	8.0%
협회·기타서비스업	3,147	3,273 (4.0%)	3,442 (5.2%)	3,649 (6.0%)	16.0%
사업시설·지원업	2,830	2,931 (3.6%)	3,060 (4.4%)	3,198 (4.5%)	13.0%
숙박·음식점업	2,628	2,666 (1.4%)	2,835 (6.4%)	3,029 (6.9%)	15.3%

- 주 1. 괄호 안은 각 업종 연임금총액의 전년 대비 인상률
 2. 2023년 연임금총액이 높은 업종 순으로 나열
 3. 음영은 각 연도별 최대값, 최소값

2011년 이후 누적 시간당 임금 인상률 65.3%, 임금총액 인상률 50.1%보다 높고, 물가상승률(24.2%)의 2.7배에 달해

< 실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한 시간당 임금 인상률 분석 >

- 우리 임금근로자 연간 실근로시간은 2001년 2,458시간에서 2023년 1,874시간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, 통계적 연속성이 확보된 2011년 이후 2023년까지도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.
- ※ 2011년 대비 2022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실근로시간은 215시간 감소하며 OECD 국가 중 최대 감소추세를 보였으며, 이는 동 기간 감소폭 2위 국가(슬로바키아)와도 63시간 차이를 보임. 2023년 OECD 자료가 미비하여 OECD 국가와 비교는 불가하나, 2022년까지의 격차를 볼 때 2023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동일할 것으로 추정
- 임금총액 기준 임금 인상률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급격한 실근로시간 감소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, 임금 인상률이 과소계상되는 문제가 발생
- 따라서 근로시간과 임금 인상률 통계의 연속성이 확보된 2011년 이후 최근까지 시간당 임금 인상률을 분석하여 근로시간 변화를 반영한 임금인상 추세를 살펴보았음.

□ (시간당 임금 인상률) 우리 실근로시간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, 시간당 임금*은 연임금총액보다 훨씬 높게 인상된 것으로 분석

* 본 보고서의 시간당 임금은 상용근로자 연임금총액(초과급여 제외)을 연간 소정실근로시간(초과근로시간 제외)으로 나눈 값으로, 지불근로시간 당 임금이 아닌 실근로시간당 임금 개념임.

- (2023년) 2023년 상용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25,604원으로 2022년 24,715원보다 3.6% 인상되어, 2023년 연임금총액 인상률(2.8%)보다 0.8%p 높게 상승하였고, 물가상승률(3.6%)과 유사한 수준*으로 나타남.

* 동 보고서는 분석의 일관성 차원에서 각 항목별 증감률에 대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기준으로 분석

- 2020년 연임금총액 인상률 0.529% < 물가상승률 0.537% ⇒ 0.5%

- 2023년 시간당 임금 인상률 3.598% > 물가상승률 3.593% ⇒ 3.6%

- 분석기간을 최근 3년으로 확장하면 연임금총액 인상률은 13.2%,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15.4%로 조사돼, 물가상승률 11.6%보다 각각 1.6%p, 3.8%p 더 높았음.

< 표 4. 2020~2023년 물가, 연임금총액 및 시간당 임금 변화 >

구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0년 대비 '23년 증감률
소비자물가지수	100.00	102.50	107.72	111.59	11.6%
	-	(2.5%)	(5.1%)	(3.6%)	
연임금총액	4,222만원	4,423만원	4,650만원	4,781만원	13.2%
	-	(4.8%)	(5.2%)	(2.8%)	
시간당 임금	22,184원	23,223원	24,715원	25,604원	15.4%
	-	(4.7%)	(6.4%)	(3.6%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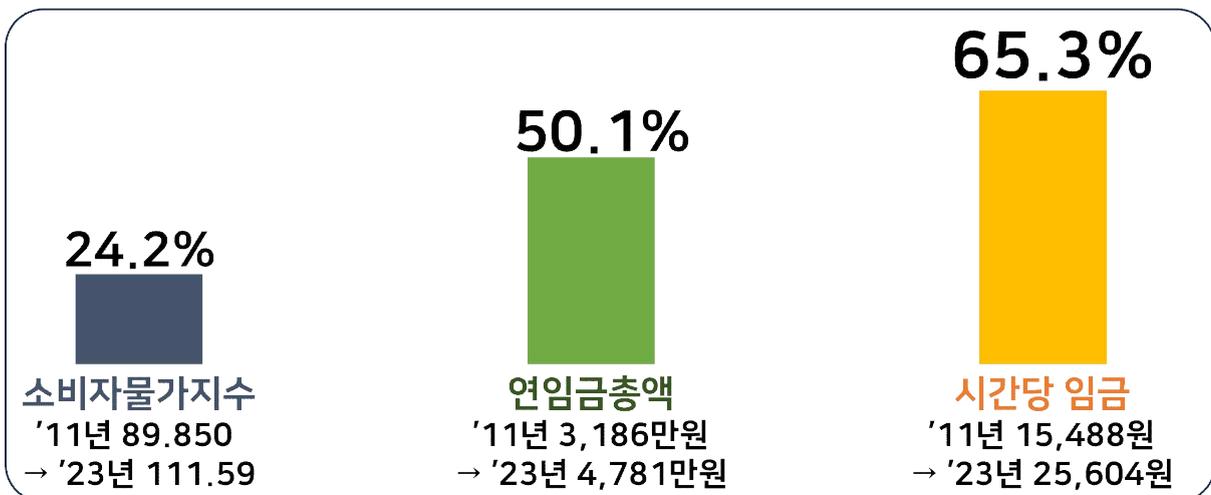
주. 괄호 안은 각 연도별 전년 대비 인상률

- **(2011~2023년)** 상용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2011년* 15,488원에서 2023년 25,604원으로 65.3% 올라, 동 기간 연 임금총액(50.1% ↑, '11년 3,186만원 → '23년 4,781만원)보다 월등히 높은(15.2%p) 누적 인상률을 보임.

*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1인 이상 전규모 사업체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최초로 공표한 시점
 ** 상용근로자의 연간 소정실근로시간 변화 : 2011년 2,057시간 → 2023년 1,867시간, 190시간(9.2%) 하락

⇒ 2011년 대비 2023년 누적 물가상승률은 24.2%인데 비해 임금 인상률은 연임금총액 50.1%, 시간당 임금 65.3%로 각각 물가상승률의 2.1배, 2.7배였음. 2023년에는 연임금총액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다소 낮았으나, 시간당 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던 적은 2011년 이후 한 번도 없었음.

< 그림 4. 2011년 이후 물가, 연임금총액 및 시간당 임금 누적 인상률(상용근로자) >



□ 2023년 상용근로자 연임금총액 인상률은 특별급여 감소로 2022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, 지속된 실근로시간 감소로 2011년 이후 2023년 까지 시간당 임금 인상률이 연임금총액 인상률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분석

① **(임금총액)** 2023년 상용근로자 연임금총액(초과급여 제외) 4,781만원, 전년 대비 131만원(2.8%) 인상, 최근 3년('21~'23년) 간 559만원(13.2%) 인상

- 2023년 임금인상률 둔화는 특별급여 감소(전년 대비 -2.9%)에 주로 기인했지만, 분석기간을 최근 3년으로 확장하면 특별급여(22.4% ↑)가 임금 인상 추세 주도
- 초과급여를 포함한 연임금총액은 사상 최초로 5천만원을 넘었음(5,053만원).

② **(사업체 규모)** 2023년 규모별 연임금총액은 300인 미만 4,296만원(전년 대비 2.6% ↑), 300인 이상 6,968만원(2.4% ↑)

- 3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, 2020년 64.2에서 2023년 61.7로 감소하며 규모 간 임금격차 확대

③ **(업종)** 2023년 금융·보험업의 연임금총액 8,722만원, 숙박·음식점업(3,029만원)보다 약 5,700만원 높았음.

④ **(시간당 임금)** 2011년 이후 누적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65.3%로 임금총액 인상률 50.1%보다 높고, 물가상승률(24.2%)의 2.7배에 달했음.

- 임금총액 인상률은 우리 실근로시간의 급격한 감소를 반영하지 않아 임금 인상률이 과소 계상되는 문제 발생
- 특히, 2011년 이후 시간당 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음.

□ 2023년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로 임금 인상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, 최근 3년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높은 성과급 등 특별급여 인상이 임금 상승을 견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음.

⇒ 특히, 노동계는 최근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고율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, 2011년 이후 상용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2.7배에 달하는 만큼, 지금은 임금안정이 필요한 시점

⇒ 또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, 연공형 임금체계와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의 임금을 안정시키고,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자제해야 할 것임.

/끝/